

“목숨을 걸어 지키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다”

미래 첨단기술 선보인 ‘2021 NEXPO in 순천’

롯데정보통신, 자율주행·스마트 스토어 등 우수기술 선보여

순천시에서 16일 개막한 4차산업혁명박람회 ‘2021 NEXPO in 순천’에서 다양한 미래 첨단기술이 선보여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17일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과 잡월드 인근 부지에서 펼쳐지는 4차산업혁명박람회 ‘2021 NEXPO in 순천’은 AI, 5G, IoT 등 다양한 미래 디지털 기술을 일반 시민에게 선보이고 있다. 또 기업 간의 비즈니스 교류도 이뤄져 순천이 4차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박람회에 참여한 많은 기업 중에서도 지난 8월 순천시와 그린스마트시티(2025 Green Smart City)를 위한 사업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는 롯데정보통신(대표이사 노준형)은 순천시와의 독특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전시 콘텐츠를 선보였다.

롯데정보통신은 업무협약 이행의 첫걸음으

로 이번 박람회에서 자율주행, 메타버스, 미래형 스마트 스토어 전시관을 통해 다양한 우수 기술을 선보였다.

특히 세종시에서 운행 중인 자율주행 셔틀을 순천시에서도 체험해볼 수 있는 독특한 기회가 제공된다. 셔틀은 박람회가 진행되는 오는 20일까지 5일간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과 잡월드 인근을 왕복 운행한다.

박람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된 자율주행 셔틀 체험기회 사전예약은 순식간에 마감됐으며, 현장 체험의 높은 관심과 인기로 이어졌다.

허석 순천시장은 “롯데정보통신 측의 열성적인 협업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생태수도 순천이 4차산업혁명을 이끄는 선진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발걸음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 기자



가을 가을한 강진만생태공원

지난 13일 남해안 하구 최대의 생물다양성의 보고(寶庫)인 강진만생태공원(전남 강진군 강진읍 남포마을) 바다갈대가 갈라져 떨어진 수운주에 서둘러 가을맞이로 갈아입어 장관을 이루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오늘부터 2주 연장

광주 유흥업소 영업제한 밤 10시 제한

광주·전남 거리두기 31일까지 연장 사적모임 집중완료 포함 최대 10명

광주시와 전라도는 지난 4일부터 시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정부 방침에 따라 18일부터 31일까지 2주 간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15일 유흥업소 6종과 노래연습장의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10시에서 12시로 두 시간 연장한다고 발표했으나, 중앙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다시 오후 10시까지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라 사적모임은 집중 완료자 포함 최대 10명까지며,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허용한다.

식당·카페는 24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며 이후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방문 판매업은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며, 숙박시설은 전 객실 운영이 가능하고, 실내·외 체육시설 내 샤워시설 운영 제한도 해제한다.

결혼식장은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집중 완료자 201명을 포함해 최대 250명까지 허용한다.

결혼식 전 피로연 행사는 식사 제공시 집중 완료자 33명을 포함해 최대 49명까지, 식사 미

제공시에는 집중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99명까지 허용한다.

종교시설은 기존 수용인원의 20%에 집중 완료자 30%를 포함해 최대 50%까지, 행사·집회는 집중 완료자 50명을 포함해 최대 99명까지 허용한다.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선제적 진단검사 의무도 유지한다. 관련 운영자 및 종사자 등은 2주 1회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집중 완료자는 제외한다.

검사대상은 유흥시설 및 배달 형태의 다방업,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및 자유업 실내체육시설, 외국인 고용사업장, 외국인 선원이 승선한 연·근해어업 허가어선,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교습소와 개인과의 교습소, 직업소개소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접종률이 80%를 넘어섰고, 10월 말까지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면,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을 보다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며 “개인 방역과 거리두기 수칙을 잘 준수하고, 백신 미접종자는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전남도 온라인 귀어엑스포

오늘부터 20일까지...귀어귀촌 정책 홍보

전남도와 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제4회 전남 귀어스몰엑스포가 18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전남귀어귀촌지원센터와 수협 전남지역본부 주관한다.

이촌계장, 우수 귀어인으로부터 생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전화와 온라인 상담도 마련했다.

귀어엑스포 누리집에서는 여수, 순천, 보성, 영광, 해남, 장흥, 강진, 고흥, 함평, 진도 등 10개 시·군 29개 이촌계 현황을 비롯해 주민의 귀어 유지 의지, 특산물, 빈집 등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시·군별 귀어귀촌 지원 정책도 홍보한다.

우수 귀어인, 귀어귀촌 전문가, 이촌계장과 상담한 후 설문지를 작성한 엑스포 참가자에게 모바일 음료를 제공한다.

귀어귀촌지원센터는 엑스포 참가자를 대상으로 전남 이촌에서 3박4일을 지낼 수 있는 ‘전남이촌탐구생활’, 한 달 간 전남 이촌에서 머물며 현장체험을 해보는 ‘도시민 전남 어민 되다’ 등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강성운 전남도 해양수산과장은 “전남 이촌이 새롭게 변모하고 있고, 이촌계의 장벽도 크게 낮아졌다”며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전남 이촌에서 제2의 인생을 도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목포 보리마당에 ‘청년 문화예술 창작촌’ 만든다

창작·체험·전시 공간 등 조성

목포시가 청년층 유입을 통한 잠재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청년 문화예술 창작촌’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목포시는 서산동 보리마당 일원 4000㎡에 32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청년 문화예술 창작촌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건물 67동과 국유지와 사유지 등 토지 57필지에 조성되는 ‘청년문화예술 창작촌’에는 창작공간과 체험공간, 커뮤니티 및 전시공간 등이 들어선다.

보리마당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도심속 흥물로 방치된 폐·공가 활용과 원도심 마을 활성화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무허가 주택정비를 통해 환경정비와 생



활인프라를 구축하고, 노령화된 마을에 청년예술인을 유입해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5월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완료한 데 이어 리모델링 및 신축설계 용역을 거쳐 내년 완공을 목표로 오는 12월 공사에 본격 들어갈 예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주민과 예술인의 상생 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주민공동체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목포=박정수 기자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내일이 행복한 광산

누가 받나요?



방임, 유기, 학대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정폭력, 성폭력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지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부지원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부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부지원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